

분과 5

온라인 분과 II : 일반

사회 :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 간  
어휘 유창성 및 어휘 구조 습득 차이

강현진(서울대학교) · 이을지(Soas University of London)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 간  
어휘 유창성 및 어휘 구조 습득 차이

강현진(서울대학교), 이을지(Soas University of London)

## 연구의 목적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 간의 한국어 어휘 습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 양적·질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하고자 함.

- 1) 어휘 유창성에 차이가 있는가
- 2) 어휘 결합 구조 이해 및 생산에 차이가 있는가

## 선행 연구

### 1) 어휘 유창성 관련 연구

- Read(2001): 어휘 풍요도(lexical richness)라는 개념을 제안한 연구
  - 어휘 **다양도**(type-token ratio): 여러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능력
  - 어휘 세련도(lexical sophistication):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전달하는 능력
  - 어휘 밀도(lexical density): 기능어와 내용어의 상대적인 비율
  - 오류의 수(number of errors) 오류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
- 이경(2015): 평가의 관점에서 어휘 유창성의 평가 구인을 제시함.
  - **미시적 차원** - 어휘의 양과 수준, 어휘 사용의 정확성
  - **거시적 차원** - 담화능력, 화용 능력, 전략적 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평가.

### 2) 어휘부에 관한 한국어 교육 실험 연구

- 강현진, 이을지(2023):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의 단어 형성과 한자어 어휘부의 실재성을 확인한 연구

## 이론적 배경

### 1) 어휘 유창성

- 어휘의 풍요도
- 미시적 차원의 어휘 유창성

### 2) 어휘부(lexicon)

- 한 언어의 총체적 표상(representation) 모형의 일부로서 그 언어의 모든 어휘적 요소와 그와 관련되는 언어적 속성을 망라해서 표상하는 부분(홍재성, 1990: 247-248)
-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어휘부 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함.
- 국내의 논의는 대부분 어휘부 내의 완전 등재를 다루며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뿐만 아니라 어휘의 결합 단위인 형태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봄.

## 연구 문제

1.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 유창성에 차이를 보이는가?
  -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 한자권과 비한자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2. 한자권 학습자와 비한자권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 결합 구조 인식과 생산에 차이를 보이는가?
  - 숙달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 한자권과 비한자권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 대상

- 1) 한자권과 비한자권 내 학습자의 모어 배경이 다양하도록 구성함.

	한자권	비한자권
예비 실험	5명	5명
본 실험	20명	20명

- 2) 예비 실험 학습자 구성

- 한자권: 총 5명
  - 중급(2명): 중국어(2)
  - 고급(3명): 일본어(2), 중국어(1)
- 비한자권: 5명
  - 중급(3명): 벵갈어(1), 말레이어(1), 인도네시아어(1)
  - 고급(2명): 불가리아어(1), 프랑스어(1)



## 실험지 구성

- 1) 20분 이내의 실험
- 2) 실험 문제 6개(각 3분씩)
  - 각 실험 문제 전 후에 시간을 기록하도록 실험지에 항목으로 제시
- 3) 실험 안내 항목을 4개
  - 실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하고자 실험지에 항목으로 제시
- 4)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
  - 모국어, 다른 외국어 구사 여부, 구사하는 다른 외국어의 급, 어휘 학습 방법
  - 어휘 학습 방법이 습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제시
- 5) 실험의 난이도 확인

## 연구 과제 1

### 1) 끝말 잇기 과제 [실험 1]

- 과제 방식
  - 제시된 단어의 끝말을 이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만큼의 단어를 씀.
  - 끝말 잇기의 예를 <보기>로 제시하여 참고하게 함.
- 과제의 목적: 한국어 어휘의 형태, 표기에 대한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유창성을 확인하기 위함.

### 2) 연상되는 단어 쓰기 과제 [실험 2~4]

- 과제 방식
  - 제시된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나 표현을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만큼 씀.
  - 연상되는 단어 쓰기의 예를 <보기>로 제시하여 참고하게 함.
  - 세 개의 세부 과제로 일상 생활 용어 세 단어(의사, 빵, 책)를 제시함.
- 과제의 목적: 한국어 어휘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연상 체계를 어떻게 이루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유창성을 확인하기 위함

## 연구 과제 2

### 1) 동일한 어휘 결합 구조(the same lexical structure) 생산 과제 [실험 5~6]

- 과제 방식
  - 제시된 단어와 동일한 결합 구조의 어휘를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만큼 씀.
  - 한국어 고유어로 이루어진 복합어(강물)와 파생어(지우개)를 각 실험의 제시어로 제공함.
  - 각 실험에 복합어와 파생어 생산의 <보기>를 제시하지 않음.
- 과제의 목적
  - 한국어 어휘의 결합 구조를 파악하여 그와 동일한 결합 구조를 생산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유창성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아울러 확인하고자 함.



## 연구의 의의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고자 함.

- 1) 학습자가 가진 한국어 어휘의 심리적인 실재를 짐작할 수 있다.
- 2)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유창성을 살펴볼 수 있다.
- 3)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 4) 학습자 모국어의 언어적 배경이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습득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볼 수 있다.
  - 한자권/비한자권
  - 고립어/교착어/굴절어

##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 연구

이은희(태국 마하사라캄 세종학당)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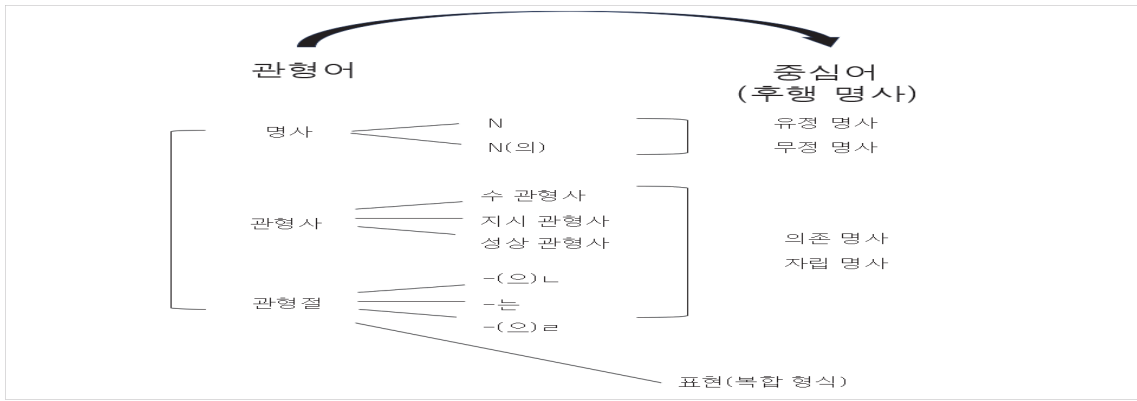
한국어와 태국어 간 극명히 대비되는 통사적 특징 중 하나는, 명사구 결합 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어순이 반대라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 시, 관형 명사구의 어순 오류가 적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 중 실제 태국인 학습자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만을 집중적으로 살핀 연구는 부재한 탓에 관형 명사구 교육 시의 주안점을 특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 태국인 학습자들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을 어순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 2. 관형 명사구

명사구 내의 수식 관계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김인균(2003)을 참고하여, 명사구 중에서도 수식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병렬 구성 명사구와 구별을 두고자 ‘관형 명사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인균(2003)의 ‘관형 명사구’는 국어학의 관점에서 명사구 내부의 관형격 조사 ‘의’의 실현 여부에 따른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명사구의 관형 구성 중 관형사와 관형형이 결합된 구성은 논외로 하고 있으나, 본고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관형 명사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명사구 구성은 물론, 후행 명사에 관형사와 관형절이 결합되는 구성을 한국어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익히고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하게 관형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관형 명사구’란 중심어인 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를 형성한 후, 문장 내에서 명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을 뜻한다. 덧붙여 중심어인 후행 명사에 앞에 선행하는 관형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명사 결합 구성, 관형사 결합 구성, 관형절 결합 구성’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1〉 관형 명사구 구성의 유형

‘명사 결합 구성’에서는 ‘N+N’ 구성과 관형격 조사 ‘의’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N(의)N’ 구성으로 나누어 본다. ‘N(의) N’에서 ‘의’가 생략되어 실현될 경우 얼핏 두 구성 간 차이가 없어 보이나, N+N 구조에 ‘의’가 개입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각 구성에 따른 명사 간의 관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구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구성 간 차이가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관형사 결합 구성’에서는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의미에 따라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로 나누어 본다. 뒤따르는 후행 명사의 유형은 초급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각 관형사와 명사 개별 결합 구성을 참고한다. Parajuab Yinsen(2000)에 따르면 수 관형사 결합 구성의 경우 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나,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구성은 어순이 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관형사별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립어인 태국어 문법 체계에 익숙한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관형절을 생성해 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주로 시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두 언어 간 관형절이 실현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 선택에 관한 어려움과는 별개로, 관형절과 후행 명사의 어순 오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급 학습자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통사의미적 특징에 의거하여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누기보다는, 보다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초급의 목표 문법인 ‘-(으)ㄴ’, ‘-는’, ‘-(으)ㄹ’의 세 가지 관형사형 어미를 표지로 자립명사와 결합하는 관계 관형절, 그리고 동격 관형절이긴 하나 특히 의존명사와 결합하여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로 하나의 표현으로 제시되는 유형의 동격 관형절로 나누어 살핀다. 이때 일부 문항은 분열문으로 실현되는 구조로, 초급 학습자들의 분열문에 대한 인식과 분열문 사용 시 관형 명사구 실현 양상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 3. 실험 대상 및 방법

실험은 태국 M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학부생 중 초급 교재를 학습 중인 1학년 학생 20명, 2학년 학생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토픽 급수는 없거나, 1급, 2급으로 모두 2급 이하의 초급 학습자들이다. 실험을 진행하는 시점에 1학년 학생들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모두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관형절 결합형 관형 명사구의 사용 양상은 2학년 학생 20명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형 명사구 사용을 유도하는 통제된 질문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을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한다. 묘사 시에 관형 명사구의 사용을 유도하는 그림과 관형 명사구 자리를 두 개

의 빈칸으로 비워둔 문장을 함께 제시하여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여 발화하도록 하는 통제된 방식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휘는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제시하여 어휘 문제로 인한 방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관형어는 수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른 관형어 미사용 또한 사용 양상 중 하나라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관형 명사구의 어순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관형어와 후행 명사가 모두 실현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연구자가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후행 명사만 발화한 경우 두 개의 빈칸을 채워야 함을 재차 안내하여 재발화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1 인터뷰 방식의 말하기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대학교의 방학 기간이라 대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40명 모두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발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문항 설계

각 결합 구성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문항	N1 -N2 <sup>1)</sup> 긍정성	제시 문장
1	무정 - 무정	망고 <b>우유</b> 이에요/예요
2	무정 - 긍정	음악 <b>선생님</b> 이에요/예요
3	긍정 - 무정	동물 <b>책</b> 이에요/예요
4	긍정 - 긍정	<b>이유진</b> 선생님이예요/예요

〈표 1〉 명사 결합 구성 관형 명사구 - N1 + N2

문항	'의'의 기능	N1 -N2 긍정성	제시 문장
5	소재	무정 - 무정	<b>냉장고(의)</b> 우유이에요/예요
6	소속	무정 - 긍정	<b>고등학교(의)</b> 선생님이예요/예요
7	소유	긍정 - 무정	<b>여자(의)</b> 책이에요/예요
8	관계	긍정 - 긍정	<b>동생(의)</b> 선생님이예요/예요

〈표 2〉 명사 결합 구성 관형 명사구 - N1(의) N2

관형사 결합 구성 관형 명사구는 총 3문항이며, 문항별 제시 문장은 아래와 같다.

문항	관형사	후행 명사	제시 문장
9	수 관형사	의존 명사	음료수 <b>일곱 병(이)</b> 있어요
10	성상 관형사	지립 명사	<b>새 가방(이)</b> 예뻐요
11	지시 관형사	지립 명사	<b>그 양말(이)</b> 얼마예요?

〈표 3〉 관형사 결합 구성 관형 명사구

1) 명사 결합 구성에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모두 명사이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별히 관형어로서 작용하는 명사를 N1, 후행 명사로서 작용하는 명사를 N2라 기재한다.

문항	관형사형 어미	용언	관계화	제시 문장
12	-(으)ㄴ	형용사	주어	지금 무서운 영화/드라마(를) 봐요.
-			목적어	-
13		동사	주어	어제 청소한 사람(은) 수지예요.
14			목적어	어제 본 영화/드라마(는) '사랑'이에요.
15	-는	형용사	주어	지금 맛있는 빵(을) 먹어요.
-			목적어	-
16		동사	주어	지금 운동하는 사람(은) 한나예요.
17			목적어	지금 듣는 노래/음악(은) '행복'이에요.
-	-(으)ㄹ	형용사	주어	-
-			목적어	-
18		동사	주어	내일 요리할 사람(은) 소미예요.
19			목적어	내일 먹을 과일(은) 사과예요.

〈표 4〉 관형절 결합 구성 관형 명사구 - 관형사형 어미

문항	표현	용언	도출 명사구
20	(으)ㄹ 것 같다	동사	비가 올 것 같아요.
21		형용사	신발이 작을 것 같아요.

〈표 5〉 관형절 결합 유형의 관형 명사구 -표현

### 5.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 분석

본 실험의 수집 자료는 통제된 질문에 대한 응답 발화를 통해 얻은 자료인 만큼, 자유 작문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에 비해 오류의 유형이 비교적 협소하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 세 유형의 관형 명사구 각각에 대한 오류 유형의 기준을 세워 분석한다.

문항	구성	특성		정답률
1	N1 + N2	무정 + 무정		85(34/40)
2		무정 + 유정		62.5(25/40)
3		유정 + 무정		77.5(31/40)
4		유정 + 유정		80(32/40)
-		평균		76.2(122/160)
5	N1(의) N2	무정(의) 무정	소재	22.5(9/40)
6		무정(의) 유정	소속	65(26/40)
7		유정(의) 무정	소유	67.5(27/40)
8		유정(의) 유정	관계	47.5(19/40)
-		평균		50.6(81/160)
평균				63.4(203/320)

〈표 6〉 명사 결합 구성의 정답률

‘명사 결합 구성’의 평균 정답률은 63.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N1+N2’ 구성의 평균 정답률이 76.2%인 것에 반하여, ‘N1(의) N2’ 구성의 평균 정답률은 50.6%로 25%가량 낮게 나타나 두 구성 간 제법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구성	전체 오류율	유형별 오류율	
		어순 오류	대치 오류
N1 + N2	23.7(38/160)	어순 오류	94.7(36/38)
		첨가 오류	5.2(2/38)
N1(의) N2	47.5(79/160)	어순 오류	83.5(66/79)
		대치 오류	16.4(13/79)

〈표 7〉 명사 결합 구성의 유형별 오류율

〈표 7〉에서 두 구성 모두 어순 오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N1(의) N2’ 구성 생성 시 어순 처리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순 오류 외 기타 오류율을 비교하면, ‘N1(의) N2’ 구성에서 기타 오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양상도 더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구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문항	관형사 유형	정답률 및 오류율			
		정답률		오류율	
9	수 관형사	정답률		62.5(25/40)	
		오류율	37.5(15/40)	대치 오류	73.3(11/15)
				누락 오류	26.6(4/15)
10	성상 관형사	정답률		62.5(25/40)	
		오류율	37.5(15/40)	어순 오류	73.3(11/15)
				대치 오류	26.6(4/15)
11	지시 관형사	정답률		35(14/40)	
		오류율	65(26/40)	대치 오류	88.4(23/26)
				누락 오류	11.5(3/26)

〈표 8〉 관형사 결합 구성의 정답률

‘관형사 결합 구성’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세 유형의 관형사 중 오직 성상 관형사에서만 어순 오류가 나타났으며, 성상 관형사 구성 내에서는 어순 오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어의 성상 관형사와 지시 관형사의 어순이 한국어와 반대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성상 관형사에서만 어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한데, 이는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지시 관형사를 목표 문법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지시 관형사의 어순의 경우 초급 학습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시 관형사가 화맥 지시로 사용될 때 한국어, 태국어 화자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이, 그, 저’를 구별하지 못한 응답이 많아 관형사 내에서는 지시 관형사가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관형절 결합 구성’ 문항은 같은 문장 구조별로 사용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즉, ‘NP[관형절+명사]을/를 V’ 구조를 지닌 12, 15번 문항, ‘NP[관형절+명사]은/는 N-이다’ 구조의 분열문인 13, 14, 16, 17, 18, 19번 문항, 표현에 속하는 20, 21번 문항으로 나누어 본다. 관형절에서 시제 문제는 중요하나, 본고의 초점은 ‘관형 명사구’, 즉 관형절과 후행 명사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형절 시제 선택 문제와 용언과 관형사형 어미 결합 시의 형태 오류에 관해서는 차치해 두고,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관형절에 형태 오류가 있는 경우 정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형 명사구를 어순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정답으로 처리한다. 관형화를 시도했으나 어순 오류, 논항 결여 등으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오답’, 관형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미사용’으로 처리하였다.

응답 유형	비율
정답	55(22/40)
오답	5(2/40)
미사용	40(16/40)

〈표 9〉 NP[관형절+명사]을/를 V

응답 유형	비율
정답	22.5(27/120)
오답	50(60/120)
미사용	27.5(33/120)

〈표 10〉 NP[관형절+명사]은/는 N-이다'

〈표 9〉와 〈표 10〉은 두 구조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9〉에서 정답률은 55%, 오답률은 5%로 관형 명사구를 사용한 24명 중 2명만이 (10-1')과 같이 어순 오류를 보여, 한송화(2015)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계 관형절의 전치 수식 구조는 초급에서부터 잘 인식하고 습득한다는 주장에 호응한다. 이에 반해 〈표 10〉, 즉 분열문 구조의 정답률은 이보다 절반가량 낮은 22.5%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주목할 점은, 오답률이 미사용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관형화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보다 관형화를 시도하였으나 분열문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혼란으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분열문 처리 과정이 초급 학습자들에게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어 관계화 문항과 목적어 관계화 문항의 주요 오답은 얼핏 유형이 달라 보였으나, 궁극적으로는 분열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필요한 논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동일하였다.

학습자들이 표현으로 익혔을 20, 21번 문항의 경우 전성어미 및 형태 오류를 두루 살폈을 때, 배운 표현을 바르게 적용한 응답이 57%였다. 오답으로는 해당 표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후행 명사인 '것'을 누락, 의존명사인 '것' 대신 다른 자립 명사를 대치한 응답이 주로 나타났으나, 어순 오류는 찾아볼 수 없었다.

## 5. 결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 명사구 사용 양상을 구성별로 살핀 결과, 선행 연구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 관형 명사구 사용 시 모어의 간섭을 받고 있으나 그보다는 각 관형 명사구 구성의 친숙도, 문장의 복잡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웹툰 텍스트 분석

함계임(한국외국어대학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류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요즘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웹툰이라고 할 수 있다. 웹툰은 최초에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웹툰 시장은 점점 확장되어 가며 해외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한국 웹툰 언어의 특징 중에는 지문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웹툰 언어의 특징인 것과 동시에 한국어의 어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웹툰에서 나타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며, 향후 이러한 웹툰 언어 분석의 결과들이 번역학 이론이나 번역 전략과 융합한다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 작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구어 중심의 웹툰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여 온라인 한국어 교재를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웹툰 언어 분석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웹툰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2. 연구 방법

2장에서는 웹툰의 일반적 특징과 언어 교육적 특징을 기존 연구를 통해 분류해 본다. 3장에서는 두 웹툰에서 지문(그림과 대화문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의성어 혹은 의태어를 수집하고 중복되는 어휘를 삭제하여 최종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분석의 기준은 등재 어휘와 미등재 어휘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지문에 사용된 품사들을 살펴보고 어휘 자체의 형태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어휘 의미와 어휘의 형태 간의 관계도 살펴본다. 4장에서는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웹툰에서의 의성·의태 표현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파악해 본다. 기존 만화 텍스트의 의성어, 의태어의 특징과 비교, 대조를 통해 웹툰 의성·의태 표현이 가진 특징과 그 이유를 찾도록 한다.

1) 2022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1조8290억이다.  
(<https://v.daum.net/v/20240213040428923> 검색일: 2024.02.14)

## Ⅱ. [재벌집 막내아들]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의성·의태 표현의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의성·의태표현은 사전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사전 등재된 표현과 미등재된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는 총 162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총 162개의 의성·의태 표현이 나타났고, 이 중 중복된 24개를 제외하여 총 300개의 의성·의태 표현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300개의 의성어와 의태어 목록은 부록에 넣도록 하겠다.

### 1. 사전에 등재된 의성·의태 표현

의성·의태 표현 300개 중 171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였고, 129개는 미등재 어휘였다. 먼저 사전등재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사전에 등재된 웹툰 의성·의태 표현의 수

	부사			감탄사	기타	총합
	의성어	의성의태어	의태어			
개수	30	31	90	12	5	171
비고					명사-2 부사-3	

### 2. 사전에 미등재된 의성·의태 표현

다음은 사전미등재어로 의성·의태표현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체 300개 중 126개로 조사어휘 중 사전미등재어는 전체의 42%를 차지하였다. 물론 절반 이상은 사전등재어이지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미등재어가 웹툰 의성·의태 표현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미등재 의성·의태 표현의 유형과 출현 횟수

미등재 의성·의태표현 유형	횟수
등재어와 동형이의	22
등재어와 유사형태, 동의	35
용언 어간의 의성·의태어화	19
신형태 신의미	53
총합	129

웹툰에 나타난 미등재 의성·의태 표현은 형태만으로는 예측이 불가한 신형태 신의미 미등재 의성·의태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원형태의 분절음 변화를 통한 등재어와 유사 형태 동일 의미를 가진 등재 의성·의태 표현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 등재어와 동형 이의관계를 가지는 미등재 의성·의태 표현과 용언 어간을 의성·의태어로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 Ⅲ. 웹툰 의성·의태 표현의 특징

3장에서 웹툰에 나타나는 의성·의태 표현의 형태를 중심으로 의성·의태 표현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3장을 기반으로 웹툰 의성·의태 표현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의성·의태 표현이 가능한 여러 다른 품사들

윤희원(1993)에서는 의성·의태 표현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은 부사지만감탄사, 명사도 의성, 의태 표현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3장의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감탄사, 명사가 의성·의태 표현을 담당하고 있었고, 의성어나 의태어가 아닌 부사가 의성·의태 표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으로 의성·의태 표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3〉 의성·의태 표현이 가능한 여러 품사들

명사	감탄사	부사	용언의 어간
위풍당당(우10) 당황(재9)	카(재4) 흠음(재43) 휴(우5) 아차(우3) 등	슬쩍(우23)빠끗(재30)뜨릿저릿(재18)	부름(우3) 뿌듯(우5) 굽적(재11)웅성(재1) 등

#### 2. 다양한 형태 변형이 가능한 의성·의태 표현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음(바삭- 빠삭)이나 모음(보글보글-부글부글)에 변화를 주어 느낌을 달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웹툰에서는 이런 자음, 모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형태 변형으로 의성·의태 표현이 가능하다.

〈표4〉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가 변형된 의성·의태 표현

자음 변경	모음 변경	축약	연장	자음추가,탈락
속(재) 토도톡(우19)	호다덕(우1)	호록(우6)철떡(우1) 덜컹(우1)	파악(재1) 화악(우1) 싸아아(재29) 위잉잉(우19)	헤헷(우22) 쯔쯔(재10)

#### 3. 의성·의태 표현의 동음이의성

형태적으로는 하나이나 가지고 있는 의성·의태 의미는 여러 가지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의미는 사전에 있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전에는 없는 의미일 수도 있다.



〈표5〉 동음이의성을 가지는 의성·의태 표현

	의미1	의미2
끼익	문 열리는 소리(우1)	(등)자동차 멈추는 소리(재1)
드르륵	청소기 모터 소리(우16)	(등)가방 바퀴 굴러가는 소리(재1)
우르르	(등)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모양(우1)	수레 등의 바퀴가 굴러 가는 소리(재19)

(등): 사전 등재 의미

#### 4. 의성·의태 표현의 자의적인 어휘 형성성

웹툰에서 새로 만들어진 의성·의태 표현이 언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은 ‘임시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정한테로(2011)에서 임시어는 화자가 만들어낸 단어 중 아직 사회적 공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순간적, 즉흥적, 문맥 의존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은 문맥 의존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공인은 거치지 않은 어휘이기 때문에 임시어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웹툰에서 새로 만들어진 의성·의태 표현은 자의적인 즉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문맥 의존적 임시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림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사용된 임시어인 의성·의태 표현



[그림1]에서는 핸드폰 진동 소리를 ‘지잉’, 기분이 좋은 모양을 ‘물루’, 재빠른 행동을 ‘삭’, 갑자기 불이 켜지는 소리 혹은 모양을 ‘팻’이라는 의성·의태 표현으로 나타냈다.

[그림2]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사용된 임시어인 의성·의태 표현



[그림2]의 의성·의태 표현은 작품 안에서만 사용되며 작가가 자의적으로 생산한 임시어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웹툰 의성·의태 표현의 언어적 특징과 박동근(2008)의 일반 만화 텍스트의 의성어, 의태어의 특징을 아래 <표6>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6> 출판된 만화 텍스트와 웹툰의 의성어, 의태어 특징 비교

	박동근(2008) - 만화 텍스트	본고 - 웹툰
형태 변형	중첩, 어중 확장	음절 교체, 어중 확장, 음절 추가 및 탈락, 축약
사용 품사	부사, 감탄사, 어근	부사, 어근, 감탄사, 명사
신어	발생	발생
기타		동음이의성

\*굵은 글씨체는 웹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표14>에 따르면 기존의 만화 텍스트보다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이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 변형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제가 웹툰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용 품사는 거의 유사하나 웹툰에서는 명사와 일반 부사가 의성·의태 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툰에서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상황으로 의성·의태 표현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웹툰을 한국어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의 형태와 사용 양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웹툰에 사용되는 의성·의태 표현이 사전에 등재된 어휘인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미등재된 어휘인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형태적으로 변형이 가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품사들이 의성·의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가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어휘들이 웹툰 안에서 의성·의태 표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하나의 의성·의태 표현이 2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만화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웹툰의 의성·의태 표현의 변형, 생성이 자유로운 이유를 웹툰의 특징인 실제성, 상호작용성, 추측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웹툰을 활용한 언어교육에 관한 내용이거나 웹툰이 만화텍스트의 언어적 특징들을 밝히고 있는데 웹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웹툰 언어의 특징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웹툰 언어의 특징들을 형태, 의미, 통사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면 한국어교육, 한국어 통·번역 교육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김연정. 2012. 웹툰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근. 1997. “흥내말의 낱말 만들기”, 『한글』 236, 137-160.
- 박동근. 2008. “한국어 만화 텍스트의 흥내말 사용 양상”, 『겨레어문학』41, 35-38.
- 양태영. 2000. “시사 만화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의미학』 6, 139-169.
- 윤희원. 1993. “의성어, 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제3권2호, 3-15.
- 이수진. 2020. 한국어 신어 사용 추이 조사 방법론에 대한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50, 399-424.
- 이현정. 201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 한국 사전학회 제 35차전국 학술대회 발표문 159-174.
- 정한테로. 2011.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2, 211-241.

<자료 수집>

네이버 웹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1-26화 /네이버 웹툰 ‘재벌집 막내아들’1- 46화

##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에 반영된 논증 작문과제의 추론적 접근양상 분석 연구

강란숙(건양대학교)

###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쓰기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에 제시된 작문과제의 추론적 접근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학문목적 학습자 대상 작문교재 개발의 과제 및 활동 구성과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 목적 쓰기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학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 능력이 학문적 문식성(Academic Literacy)을 기르는 것이다(형재연, 2022:158). 특히 대학(원) 학업수행에서 쓰기영역은 실제적인 도구(고주환, 2019)로 활용되는 것으로 학습자가 대학(원) 학술담화 환경에서 고도의 지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이다. 학문목적 학습자는 대학(원)에 진학 후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암기 형태의 학습활동이 아니라 논문과 같은 문서를 읽고 분석하고 서술형 시험문제나 과제 등을 에세이 형태로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술목적 글쓰기는 논리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을 우선시 하는 영역이며 모든 결론과 요점은 반드시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의미 구성 과정을 위한 전략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숙한 한국어 역량을 고려하여 글쓰기 과정에 필요한 이러한 필수 과제나 전략에 관한 교육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몇 가지 정보만을 취합하는 단편적인 사고 전개 방식의 전시적이고 기계적인 글쓰기 활동을 다루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학문목적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이 대학(원)에서 목표로 하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전개를 지향하는 데에 소극적인 교육실행이 전개된다는 것(허남영, 김명순, 2021)을 나타낸다. 하지만 학문목적 글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학습 목표와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교육 현장에서 이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기존에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이어온 전시적 형태의 단순한 글쓰기 연습방식에서 벗어나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학문적 능숙도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Alexander et al.(2019:145)에서는 학문목적 학습자의 글쓰기 능숙도는 학습자가 학문목적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학문목적으로 배우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와 활동 방식을 대학(원) 수업이나 학위과정에서 필요한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작문과제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모델로 삼아 학습자가 문제나 주장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것과 같은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학문목적 글쓰기 과정이 자유로운 형식의 전시적 형태의 글쓰기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추론적 과정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학업수행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Alexander et

al.(2019)에서와 같이 학문적 능숙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에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이 수행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쓰기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쓰기 교재의 ‘작문과제’를 대상으로 학문목적 학술과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범주에 해당하는 논증작문의 추론적 접근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학문목적 작문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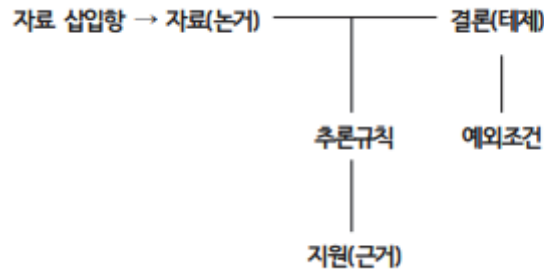
## 2. 학문목적 작문과 논증 활동

‘학문목적 쓰기’ 개념은 일반목적과 학문목적의 교육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목적의 ‘쓰기’는 글말을 사용한 의사소통 도구로서 좁은 의미의 ‘전사’와 같은 글씨 쓰기를 비롯하여 넓은 의미의 ‘작문’과 같은 글쓰기 활동을 지칭한다. 반면, 학문목적 쓰기는 이러한 언어교육에서의 쓰기 개념 및 활동을 기반으로 학술 담화 환경의 학문적 지식 이해를 터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지식 재생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목적 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 개념보다는 ‘작문’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학술 담화 영역의 주제에 대하여 추론적 사고과정 즉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전개한다. 이는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학술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학문 공동체로서 갖추어야 할 담화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 과정도 단순한 글쓰기 연습을 지양하고 확산적 글쓰기를 통한 인지과정 발달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임선숙, 2019)는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해석이다. 허남영, 김명순(2021)에서는 학문목적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텍스트를 통해 과제에 대한 이해와 확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문제적 시각을 발견하는 것과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원진숙(2005)에서는 학습자가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주장과 근거에 초점을 맞춘 논증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하며, 손동현(2008)에서는 학문목적 글쓰기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주장이나 견해가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글로서 자기 성찰과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문목적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개념적 논의들은 학문목적 글쓰기가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언어교육 과정에서의 전시적 글쓰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문목적 쓰기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학문목적 ‘작문(composition)’으로서 학문적 담화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주제와 활동을 중심으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에서 창의적 사고 전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목적 글쓰기 개념을 학문목적 작문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 한다.

학문목적 작문은 학문적 맥락에 참여한 학업동료 및 연구자들과 학술분야에 관한 복잡한 개념, 이론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학문적 공감대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학문목적 작문은 저자가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특정 학문분야의 지식에 유효한 새로운 지식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객관적인 어조와 어휘 선택 및 형식적인 스타일 등을 사용해야 하며, 저자가 학술주제와 관련된 질문, 분석, 해석의 의미를 이론, 증거, 새로운 연구방법 아이디어 등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며 독자의 설득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학문목적 쓰기교육 연구에서 작문에 기존 논의들은 쓰기 과정에서 과정중심 쓰기교육을 지향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쓰기 계획하기에 이어 쓰기 및 수정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회기적 과정을 반복하는 활동에 주목한다. 그러나 Steve Graham(2020:286)에서는 작문과제 지도는 언어와 문식성 기능, 문서생산 및 관리기능, 비판적 사고기능 등이 쓰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복잡한 기능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상향식과 하향식 쓰기 방법을 지도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스타일과 적성에 적합한 쓰기 유형과 접근 방식을 터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작문 과정이 일반 의사소통 목적의 자유 작문과는 다르게 주제와 연관된 증거 기반의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의 전개라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논증 작문은 학술작문 영역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하는 논리적인 영역으로 독자의 설득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문목적 학습자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술담화 환경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지식 분석, 적용, 최선의 방법을 선택(권순희 외, 2021:456)하는 문어적 차원의 문제해결 과정을 연습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다루는 지식 이해와 확장을 논리적 사고 활동으로 전개한다. 학문목적 작문에서 추론적 사고과정은 논증형 글쓰기와 같은 장르에서 논거를 통한 주장을 증명하는 과정에 추론 규칙이 적용된다(안정호, 2012)<sup>1)</sup>. 학습자가 선택하는 추론양상은 귀납적 추론(Inductive Reasoning)과 것과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인 것이 있다. 귀납적 추론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또는 역으로 보편성에서 구체성을 유도하는 추론 형식 또는 추리 방법이다. 반면, 연역적 방법은 대전제에서 소전제를 거쳐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리적 추론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진 3단 논법과 같은 추리 방법이다.



〈그림 1〉 논증형 주제전개 모형 (안정호, 2012:109에서 참고)

기존에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연구에서는 학문목적 쓰기가 일반목적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쓰기와는 기능과 도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차별화 하는 교육 접근으로 논증 글쓰기를 위한 표현문형 사용 연구(김보영, 2020), 지시어 사용 연구(2019), 논문과 같은 학술 텍스트 표지 교육(유해준, 2017; 차봉준, 2015), 논증적 쓰기의 양태표현 교육(황선영, 윤유선, 2021) 등의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들 논의는 주로 전형적인 학술 논문에 사용되는 담화의 전형을 모형으로 삼아 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언어 단위의 문형과 표지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술담화의 전형성은 학문목적 유학생이 대부분 성인으로서 이들이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 터득한 학술담화의 전형이 학술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작문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학문목적 작문을 위한 교육에 적용되는 논증 텍스트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초, 중등 국어와 작문 교육과정 및 대학논술에 적용된 지침에 따라 마련된 주장과 논거, 논증이 기본 요소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방어나 주장에 대한 지지 등 반대의견 또는 반박에 대한 방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조인옥, 2017:40). 따라서 한국 담화공동체가 요구하는 적절한 논거 제시 교육, 자신의 주장과 이유 나열이 아닌 반박에 대한 방어 부분 고려한 작문으로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연습의 필요하다(조인옥, 2017).

1) 안정호(2012)에서는 툴민(St. Toulmin)의 논증형 주제 전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국어 숙달도 기준 중급에 해당하는 3급 학습자들이 논증형 주제인 ‘텔레비전의 장점과 단점, 바람직한 텔레비전 시청 방법’라는 주제로 쓴 텍스트 분석결과 전체 학습자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17명의 학습자가 문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Tribble(1996:131)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문목적 쓰기를 위한 교육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모형을 심어줌으로써 개별적인 창조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규범적인 글쓰기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문목적 글쓰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을 벗어나 학습자가 학술적 주제에 대한 탐구과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학문목적 글쓰기가 단순한 규범적 형태의 전시적 모방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학문적 활동의 좁은 영역으로 학술담화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생각을 쓰도록 요구받는 시험문제와 같은 답안형식 쓰기활동을 비롯하여 넓은 영역의 논문, 에세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전공별로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까지 학술 담화환경에서 요구되는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창의적 탐구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해 발행된 쓰기 교재 구성 중 ‘작문과제’로 제시된 추론적 접근 양상을 분석한다.

### 3. 학문목적 쓰기 교재의 작문과제 추론 양상 분석

#### 3.1. 분석 대상 교재

학문목적 쓰기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 가운데 총 6개를 선정하여 이들 교재에 제시된 작문과제의 추론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는 대학(원)에서 학문목적 글쓰기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에 한정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학문목적 쓰기 교재 목록

	교재명	저자(연도)	교재명(출판사)
(가)	외국인을 위한 대학글쓰기	차봉준, 김은정, 박정순, 윤선희, 최동일(2023)	박이정
(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글쓰기	이은영(2022)	한국문화사
(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글쓰기	이미란, 김현정, 나선혜, 조은숙, 조향숙(2021)	경진출판
(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글쓰기	신영미, 이은선, 손자영(2020)	Essay
(마)	외국인을 위한 대학글쓰기	강성애, 노석영, 임현열, 한승우(2021)	인문과 교양
(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기초	양태영(2019)	(주)박이정
(사)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 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8)	Epress
(아)	서울대 한국어 Plus 학문목적 쓰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자)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와 포트폴리오	남기택, 권석순, 이완형, 최도식, 최승기(2013)	삼경문화사
(차)	외국인을 위한 대학글쓰기	이상혁(2009)	글누리

#### 3.2. 분석 기준

논증작문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의견에 대하여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이끌

어 내는 글이다. 이러한 글의 설득력은 글을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글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치를 따져 객관적인 논거를 기반으로 논리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주장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이를 위하여 글을 쓰는 사람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핵심 문장과 논거 내용을 글을 쓰기 전에 미리 정리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특히 실험과 사례 연구 등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에서는 논증문에 대한 논거가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논증 작문이 ‘논증(argumentation)’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기반으로 정당화하는 명제들의 집합’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에 따라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과정의 논증양상이 구별된다. 따라서 논증에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논증작문 과제의 추론활동은 학습자가 안정호(2012)에서 제시된 ‘논증형 주제전개 모형’에서 추론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학문목적 쓰기 교재의 내용 중 작문과제의 추론양상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교재의 논증 작문과제 추론 제시 양상 분석 기준

기준	요소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증작문 과제의 제시 양상은 어떠한가?</li> <li>• 논증작문 과제의 텍스트 제시 양상은 어떠한가?</li> </ul>
문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증작문 과제의 문제 유형은 어떠한가?</li> <li>• 논증작문 과제의 명제 유형은 어떠한가?</li> </ul>
추론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증작문 과제의 추론 질문 제시 양상은 어떠한가?</li> <li>• 논증작문 과제의 추론 질문 유도를 위한 텍스트 제시 양상은 어떠한가?</li> </ul>

### 3.3. 분석 결과

〈표 4〉 교재의 논증 작문과제 추론 제시 양상 분석 결과

	과제제시		문제유형		추론질문	
	과제 제시	텍스트 제시	문제 유형	추론적 명제 유형	질문제시	텍스트 제시
(가)	√	√	×	×	×	×
(나)	√	√	√	√	√	√
(다)	√	√	×	×	×	×
(라)	×	×	×	×	×	×
(마)	√	√	×	×	×	×
(바)	×	×	×	×	×	×
(사)	√	√	×	×	×	×
(아)	√	√	×	×	×	×
(자)	√	√	×	×	×	×
(차)	√	√	×	×	×	×

학문목적 쓰기교육을 목적으로 출판된 총 10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논증 작문과제 추론 제시 양상 분석한 결과 8종의 교재에서 학문목적 쓰기 영역의 논증글쓰기에 관한 주제와 작문 활동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론 질문 영역



에서는 총 1종의 교재만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작문 과제의 ‘추론적 접근 양상’에 관해서는 총 9종의 교재에서 ‘주장하기’의 논증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논증글쓰기에서 학습자의 귀납적, 영역적 사고과정을 활성화 하는 추론영역의 텍스트, 활동, 질문제시 등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문목적 글쓰기에서 논증작문의 귀납적, 연역적 추론 과정 연습은 학문목적 학습자가 논증과정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실제적인 학술과제 및 학술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전략이므로 향후 교재 및 교육에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습 방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표준한국어의 학습도구 교재 분석

김영주(영남대학교)

초등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표준한국어의 학습도구 교재 분석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7차 국제학술대회

영남대 김영주

## 1. 서론

다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코로나 이후 K-POP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만큼이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다문화 학생수는 2022년 기준 168,645명으로 그 중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은 122,095명이고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은 9,938명이며 외국인 자녀학생은 32,678명이다. 이중에서 국내 출생의 다문화 학생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개발원)

## 2. 연구의 필요성

초등 다문화 한국어 학습자들은 교육부의 지침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의 한국어 수업을 받은 후에도 교과 수업을 잘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기초 학력 부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는 한국어 교육과정(2017)의 사고 기능 및 의사소통 기능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들을 검토하여 해당 학년의 학습자들이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출하고 이 기능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조청화,2020)

- 자세한 내용은 발표 시 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 다문화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한국어의 문제는 의사소통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학업 부적응 문제로 한국어교육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표준 한국어 교재의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초등 다문화 학습자는 0.68%, 중등 다문화 학습자는 0.78%, 고등 다문화 학습자는 2.05%가 중도 학업 탈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유형별 상황 특성에 대해 찾아보았다 (전은주,2012).

표 1. 다문화 배경 학습자 유형별 상황 특성

내용		제목	한국어지위	일상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학교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입학시기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모국어	생활에 문제없음	학습 한국어 능력부족	초등학교 입학부터
	송도 입국 자녀		제2언어	일상적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어 전혀 모르는 경우 많음	한국어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함	입국 이후
이주근로자 자녀, 유학생 자녀, 기타 외국인 자녀			제2언어 혹은 외국어	일상적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어 전혀 모르는 경우 많음	한국어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함	입국 이후
새터민 자녀			모국어	일상적 의사소통 중 일부 어려움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부족	입국 이후
귀국자 자녀			모국어	일상적 의사소통에 문제없음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부족	귀국 이후

- 표 1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학교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즉 학습 도구어의 부족이 있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다문화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표준 한국어의 학습도구> 교재와 <초등 국어 3~4학년> 교과목의 지시 문장을 분석하여 볼 것이다. 효과적인 지시 문항의 수행을 위한 지시 문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분석 방법을 제시 할 것이다.
- <국어 교과서>와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의 지시 문항도 일종의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의 분석 방법은 이미향, 광미라(2013)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 방법의 연구들 즉 Willis(1996), Paulston, 이윤실(2006) 등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지시 문항 분석에 맞게 활용하여 분석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 정규 교과 과목 중 왜 <국어>교재를 비교하는가?

- 국어 과목에서 배운 읽기와 생각하여 쓰기 등 언어의 기능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는 노정은, 박진욱(2014)에서도 학습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 기술은 교과별로 그 특성이 다르지만 국어과의 경우 도구 교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를 학습할 때 적용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범교과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 또한 오인미(2021)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교과 학습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언어적 요인이며 수학 학습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한국어 능력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 능력은 학습도구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학습 도구어란?

신명선(2004)에서는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학생들의 인지 발달 논의를 바탕으로 저학년에서는 학습도구어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 5-6학년의 어휘 목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4학년 이지만 고학년으로의 과도기 시점에서 학습도구어 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도구어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와 논리 전개를 담당하는 단어들을 말한다고 하였다.( 허부영, 2014 )

## 5. 학습도구어의 특징

1. 학문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
  2. 일상 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 전문어가 아닌 전문어적인 특성
  3. 사고와 논리를 전개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레임 같은 기능을 함.
  4. 학술텍스트에서 나타난다는 점.
- 이러한 학습도구어는 글을 읽을 때 글의 주제와 중심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습을 할 때 필요한 도구어라고 볼 수 있다.

## 결론

- 초등 다문화 배경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과 학업 향상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와 <초등 국어>교재의 지시 문항을 살펴 보았다.
-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석 방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재를 분석해 볼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발표 시)
- 본 고에서 나온 결과는 중,고등학교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여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가 기대됩니다.

## 참고문헌

- 이미향,곽미라(2013)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중급 교재의 과제 제시 유형 연구
- 오인미(2021)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 교재 개발 사례-중등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 조청화(2020)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교재 내용 분석-한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 허부영(201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학습도구어 교수. 모형 연구-초등학습자를 대상으로-